

문화유사 및 공감의 도움의향에 미치는 영향 세계시민주의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The Influence of Cultural Similarity and Empathy on Helping Intention: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osmopolitanism

이창환* · 손영우** · 임혜빈***†
Chang Hwan Lee* · Young Woo Sohn** · Hye Bin Rim***†

*연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Cognitive Science,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Abstract

Prior research suggested that people generally show stronger intentions to help in-group members because people experience higher levels of empathy for those who are similar to themselves. The present research demonstrated that one's levels of cosmopolitanism would moderate the mediating role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imilarities and helping intentions. In particular, it was examined how the mediator (empathy) affected the relation between cultural similarity and helping intention for participants with low to high levels of cosmopolitanism. Results indicated that participants with lower levels of cosmopolitanism showed stronger empathy as targets are more culturally similar to participants' own culture. Participants with higher levels of cosmopolitanism, however, reported the same levels of empathy regardless of targets' cultural similarit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Intergroup Bias, Cultural Similarity, Empathy, Helping Intention, Cosmopolitanism

요약

기존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본인과 유사한 대상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까닭은 본인과 유사한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높은 공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움의향에 있어서의 내집단 편향의 크기를 매개하는 공감의 효과를 세계시민주의 수준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문화 유사성 수준이 각기 다른 국가 출신의 교환 학생들에 대한 설명을 읽고, 공감 수준과 도움의향, 세계시민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과 도움의

† 교신저자 : 임혜빈(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E-mail : hbrim@kw.ac.kr
TEL : 02-940-5656

향의 관계를 공감의 매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문화 유사성과 공감의 매개 모형에 있어서의 세계시민주의의 조절효과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낮은 사람 참가자들은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높을 때 더 높은 공감 수준을 보였지만,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참가자들은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유사한 수준의 공감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내집단 편향, 문화 유사성, 공감, 도움의향, 세계시민주의

1. 서론

심리학 연구에서 도움행동은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정의된다(Penner et al., 2005). 도움행동은 친사회적 행동 혹은 이타주의 행동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심리학 연구에서 이와 같은 개념들은 자원봉사 활동(Foster et al., 2001; Freeman, 1997), 물질 기부(Frey & Meier, 2004), 헌혈(Piliavin & Callero, 1991)과 같이 타인의 안녕을 보호하거나 강화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되어 왔다(Lee et al., 2010).

각종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타인의 안녕을 위한 도움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300 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연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국외의 경우에도, 미국 가구의 약 60% 정도가 정기적인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ndreoni, 2006; Pharoah et al., 2006). 그러나 미국의 연간 기부액 중 단 1%의 금액만이 자국이 아닌 국외로 기부된다는 최근의 보고(Andreoni, 2006)는 도움행동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한정적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인과 같은 집단에 속한 자국민에게로 집중되는 도움행동은, 기부 활동과 같은 도움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유한 국가의 자원이 생존과 관련된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활하는 사회적 동물로서, 문화, 국가, 인종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자신과 타인이 유사한 수준을 파악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한다. 심리학자들은 본인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에 비해 본인이 속한 내집단을 향한 도움행동

이 집중되는 현상을 내집단 편향(intergroup bias)의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한다. 내집단 편향이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 고양의 욕구로 인해, 자신이 속한 내집단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성을 의미한다(Straume & Odèen, 2010).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집단 사람들과 상호작용 할 때보다 외집단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부정적 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쉽게 형성하는데(Dijker, 1987; Jackson & Sullivan, 1989; Stephan & Stephan, 1985), 남성 중심의 기업에서의 고용 결정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든지(Bertrand & Mullainathan, 2004; Jamieson & Zanna, 2014; Uhlmann & Cohen, 2007), 임대인을 결정하거나(Carpusor & Loges, 2006), 시험 점수를 매길 때(Kruglanski & Freund, 1983)조차, 내집단 구성원이 외집단 구성원보다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은 현실에서의 내집단 편향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내집단 편향은 타인에 대한 선의를 바탕으로 한 도움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Carson, 1990; Gaertner et al., 1982; Rimor & Tobin, 1990). 실레로, Cuddy 등(2007)은 2005년 카트리나 태풍으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에 주목하여 도움행동에 있어서의 내집단 편향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뉴올리언스에 카트리나 태풍이 발생한 2주 후, Cuddy 등은 실험참가자들에게 이재민을 도울 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들은 실험참가자들의 이재민을 도우려는 의도가 이재민과 실험참가자들의 인종의 유사성에 의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실험에서 백인 실험참가자들은 백인

임을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이재민을 그렇지 않은 이재민에 비해 더 도우려고 했고, 백인이 아닌 실험참가자들은 그와 반대로 본인과 유사한 인종이라고 짐작되는 이재민을 더 돕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내집단 편향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Hogg & Hardie, 1991; Turner et al., 1987)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도움행동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움 대상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인가에 따라 도움 대상에게 느끼는 공감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것을 통해서 지각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것을 의미한다(Basch, 1983).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한 연민, 동정, 걱정, 우호적인 감정으로 정의되는(Batson, 2014) 공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사람들은 그 대상을 도와주려는 더 큰 의도를 갖게 되는데(Jung & Han, 2011), 사람들은 외집단 구성원에 비해 내집단 구성원에게 공감을 더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집단 구성원을 더 기꺼이 돕고자 한다는 것이다.

Hein 등(2010)은 자기공명영상(fMRI)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외집단 사람들의 고통에 비해 내집단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경험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Hein 등(2010)은 우선 실험 참가자들이 응원하는 축구팀에 따라 그들을 다른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참가자는 다른 참가자인 것처럼 위장된 실험 공모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실수를 할 경우 전기 충격을 받게 되는 상황을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참가자는 본인과 다른 팀을 응원하는 외집단 구성원에 비해 같은 팀을 응원하는 내집단 구성원이 전기충격을 받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에, 공감과 관련한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anterior insula)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뿐 아니라, 내집단 사람이 고통 받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더 높은 비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참가자를 대신하여 기꺼이 전기충격을 경험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종에 대한 내집단 편향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Motyl et al., 2011; Tadmor et al., 2012)에 의하면, 개인의 다문화경험(multicultural experiences)은 내집

단 편향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Tadmor 등(2012)의 연구에서 실험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상의 관리자가 되어 이력서를 토대로 매니저를 고용하는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이 검토한 이력서들은 지원자의 이름이 백인을 나타내는 이름인지, 흑인을 나타내는 이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력서를 평가하기 전에 실험참가자들은 한 문화에만 노출되는 조건(미국 혹은 중국)과 양쪽 문화(미국과 중국)에 모두 노출되는 조건으로 무선 할당되었다. 실험 결과, 한 문화에만 노출된 실험참가자들은 동일한 이력서라 하더라도 지원자의 이름이 흑인인 경우에 비해 백인일 경우 더 나은 지원자로 평가했고, 양쪽 문화에 모두 노출된 사람들은 쓰인 이름에 상관없이 두 이력서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평가를 내렸다.

또한, Motyl 등(2011)은 들은 미국인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노출이 반(反) 이슬람주의 성향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였다. 그들은 참가자들을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을 보는 조건, 미국 가족이 식사를 하는 사진을 보는 조건, 사람들이 상호작용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진을 보는 조건으로 구분된 세 점화(priming) 조건에 할당하고, 사진을 보기 전과 본 후 참가자들의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세 조건 중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을 보는 조건에 할당된 실험참가자들만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발견하였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노출이 대상에 대한 편견을 줄인다는 위의 연구 결과들은, 타 문화권에 대한 개인의 상이한 태도에 따라 국가, 인종 및 문화 차에 의해 유발되는 내집단 편향의 크기가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내집단 편향과 다문화 경험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사회에서 내집단 편향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 세계시민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세계시민주의는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 하에 출신 국가나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을 세계 시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Nussbaum 2010). 세계시민주의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

면(Reysen & Katzarska-Miller, 2013), 세계시민주의는 사회적 정의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의식과 정적인 상관관을 보인다. 즉, 세계시민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세계시민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에 비해 국경을 넘어서는 도덕적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세계시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다른 문화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으로(Vertovec & Cohen, 2002), 높은 수준의 세계시민주의 태도를 가진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다른 문화권에 속한 타인을 세계 시민이라는 내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세계시민주의 태도가 높은 개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인종, 다른 국가의 구성원에게도 같은 인종, 같은 국가의 구성원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수준의 공감함을 경험하게 되며, 동등한 수준의 도움행동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연구 가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집단 편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도움행동의 차이는 도움 대상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라 도움 대상에 대해 느끼는 공감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 개인은 자신과 유사성이 낮은 외집단의 구성원에 비하여, 유사성이 높은 내집단의 구성원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경험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화적으로 덜 유사한 타인에 비해 더 유사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의향이 강한지를 확인하고 (가설 1), 나아가 문화 유사성과 도움의향의 관계를 공감이 매개하는지를 (가설 2) 재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문화적으로 덜 유사한 구성원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보다, 문화적으로 더 유사한 구성원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더 높은 도움의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문화 유사성과 도움의향의 관계를 공감이 매

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유사한 타인에게 더 강한 공감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문화적으로 더 유사한 타인을 더 도우려고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을 세계 시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자 하는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개인의 경우에는 문화 유사성으로 나누어지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에 덜 민감하여, 타 문화권에 속하는 타인 역시 내집단의 일원인 것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타 문화권에 속하는 타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도 자 문화권의 타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와 같은 수준의 공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도움 의향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가설 3에서는 문화 유사성과 도움의향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개인의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조절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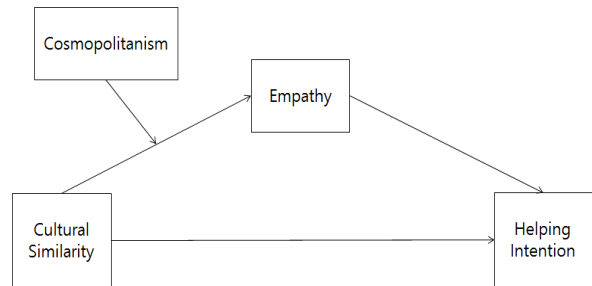


Figure 1. Moderated mediation model.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cultural similarity on helping intention through empathy, moderated by cosmopolitanism.

가설 3.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높을수록 더 큰 공감을 느끼는 성향은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집단보다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낮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3. 연구

3.1. 연구방법

3.1.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교 심리학 전공과목 및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79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총 실험참가자들의 성별은 남녀 각각 83명과 96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21.8세($SD = 2.33$)이었다.

3.1.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한 가상의 6명의 외국 국적 교환학생에 대한 설명을 읽고 질문에 응답하였다. 교환학생에 대해 주어진 정보는 학생의 성별, 연령, 국적을 포함하고 있었다. 교환 학생의 연령은 대학 재학생인 참가자들의 연령과 유사하도록 만 21세~23세의 범위에 속하도록 하였고, 교환학생의 성별은 참가자들의 성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참가자들이 인식하는 교환학생과 본인의 문화 유사성 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교환 학생의 출신 국가를 6개 국가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한 교육부 자료를 참고하여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에서 각각 가장 출신 유학생 숫자가 많은 국가인 미국, 중국, 케냐, 프랑스를 선정하였다. 이어서, 문화유사성 수준의 변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유사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시아 대륙에서 국내 유학생 숫자의 비율이 높은 일본, 베트남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실험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해외에서 온 교환 학생과 재학생을 1:1로 연결하여 교환학생이 학교생활 및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재학생 자격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진으로부터 다음 학기부터 당신의 학교를 다니게 될 아래의 6명의 교환학생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6명의 교환학생은 모두 당신과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고, 이번 한국 방문이 그들의 첫 해외체류 경험이라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국적은 각기 다릅니다. 아래에 제시된 각각의 교환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읽고 각 사람 및 그 사람이 속한 문화권에 대한 아래의 질문에 6점 척도로 응답해 주세요.”

각각의 교환학생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후, 참가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 교환 학생과 한국의 문

화 유사성 수준, 교환 학생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공감 수준, 도움의향, 세계시민주의 척도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고 간단한 연구 사후 설명을 제공받았다.

3.1.3. 측정 도구

문화 유사성

참가자가 각 교환학생에 대해 느끼는 문화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5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나라와 대상의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5가지 영역은 가치관, 여가 활동, 교육수준, 생활수준, 생활방식이다. 예를 들어, 가치관에 대한 문화 유사성에 대한 질문은 “이 사람이 속한 문화권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대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5가지 영역에 대한 문화 유사성 척도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는 .89로 나타났다. 실험 자극에서 사용된 6개 국가에 대한 문화 유사성 평균은 일본 4.45($SD = 0.81$), 중국 4.09($SD = 0.76$), 베트남 3.65($SD = 0.85$), 미국 3.59($SD = 0.82$), 프랑스 3.59($SD = 0.80$), 케냐 3.04($SD = 0.98$) 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주의

참가자의 세계시민주의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Chi와 Sun (2007)이 사용한 세계시민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구공동체 의식, 다국적 의식, 시민의식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지구공동체 의식 요인의 예시 문항은 “지구 공동문제 (환경, 평화, 기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국적 의식의 예시 문항은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 의식 요인의 예시문항은 “사회를 위해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같다. 결과 값의 측정은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시민주의 의식에 대한 문항은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이고 6점은 ‘매우 그렇다’이다. 본 연구에서 세계시민주의

의식 척도의 내적일관성 계수 (Cronbach's alpha)는 .91로 나타났다.

공감

참가자의 대상에 대한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전 연구들에서 활용한 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Batson, 2014; Stürmer et al., 2006). 본 척도는 총 5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민(symathy), 따뜻함(warmth), 돌봄(care), 염려(concern), 감정이입 관심(empathic interest)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 값의 측정은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감에 대한 문항은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이고 6점이 '많이 그렇다'이다. 본 연구에서 공감 척도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는 .76 로 나타났다.

도움의향

참가자의 대상에 대한 도움의향을 측정하기 위해 도움의향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5 문항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1) “나는 이 사람에게 내 친구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 (2) “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3) “나는 이 사람을 내 숙소에 머물게 할 수 있다,” (4) 나는 이 사람에게 내 물건을 빌려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옷),” (5) “나는 이 사람에게 시티 투어를 시켜줄 수 있다”. 참가자들의 도움의향은 의 측정은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도움의향에 대한 문항은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이고 6점이 '많이 그렇다'이다. 본 연구에서 도움의향 척도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는 .91로 나타났다.

3.1.4. 자료 분석

문화 유사성과 공감 사이의 관계에서 세계시민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 유사성이 공감을 통해서 도움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세계시민주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moderated medi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은 Hayes(2013)가 고안한 SPSS Macro인 PROCESS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

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3.2. 연구결과

3.2.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도움의향은 문화 유사성($r = .244, p < .001$), 공감($r = .390, p < .001$), 세계시민주의($r = .417, p < .001$)와 각각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어, 문화적으로 더 유사하거나, 더 공감할수록, 세계시민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도움의향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은 문화 유사성($r = .137, p < .001$), 세계시민주의($r = .229, p < .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문화 유사성과 세계시민주의가 높을수록 공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cultural similarity, cosmopolitanism, empathy, and helping intention

Variable	1	2	3	4
1. Cultural Similarity	-			
2. Cosmopolitanism	.169***	-		
3. Empathy	.137***	.229***	-	
4. Helping Intention	.244***	.417***	.390***	-
M	3.73	4.39	3.26	4.56
SD	.94	.65	.89	.92

*** $p < .001$

3.2.2. 매개효과 분석

문화 유사성이 공감을 통해 도움의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있다. 우선, 1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문화 유사성이 도움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지지되었다($\beta = .244, p < .05$).

2 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문화 유사성이 매개변수인 공감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문화 유사성은 공감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beta = .137, p < .001$). 이 결과는 문화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식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경험

Table 2. Regression results for the mediation effect of empathy.

	Step 1			Step 2			Step 3		
	Outcome: Helping intention			Outcome: Empathy			Outcome: Helping intention		
	<i>b</i> (se)	β	<i>t</i>	<i>b</i> (se)	β	<i>t</i>	<i>b</i> (se)	β	<i>t</i>
Cultural Similarity	.238 (.029)	.244	8.241***	.129 (.028)	.137	4.524***	.189 (.027)	.194	6.997***
Empathy							.377 (.029)	.363	13.079***

*** $p < .001$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문화 유사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 공감이 도움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공감의 효과는 $\beta = .363$ ($p < .001$)으로 유의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높은 수준의 공감을 경험할수록 도움의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공감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문화 유사성이 종속변수인 도움의향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화 유사성의 효과 크기가 매개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beta = .244$ 와 비교했을 때에 비해 $\beta = .194$ ($p < .00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줄어든 문화 유사성의 β 값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매개변수인 공감이 문화 유사성과 도움의향 사이를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문화 유사성이 도움의향에 미치는 매개효과와 계수는 $.050 (= .137 \times .363)$ 이다.

나아가, 이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였다. 본 절차에서 부트스트랩핑으로 재추출된 표본 수는 5,000개였으며, Table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매개효과 계수 값은 .377 이었다. 95% 신뢰구간의 범위는 [.315, .438]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지지되었다(Preacher et al., 2007). 이 결과는 가설 2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문화 유사성이 대상에 대한 공감 수준을 증가시키고,

높아진 공감 수준이 도움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 과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매개경로가 유의한 상태에서 문화 유사성이 도움의향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효과 또한 유의하기 때문에, 문화 유사성이 공감을 통해 도움의향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공감에 대한 설명 없이도 도움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2.3. 조절효과 분석

문화 유사성이 공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세계시민주의 성향에 의해 공감 수준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화 유사성과 공감 사이의 관계에 세계시민주의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문화 유사성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문화 유사성과 조절변수인 세계시민주의를 투입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문화 유사성 \times 세계시민주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분석 결과, 문화 유사성과 세계시민주의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910$, $p < .001$). 이 결과는 문화 유사성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세계시민주의의 수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회귀계수를 이용해, 조절효과와 회귀식을 도출해 이를 Figure 2에 제시하였

Table 3. Bootstrapping results for the mediation effect of empathy

Variable	Coefficient	Boot SE	95% CI	
			LLCI	ULCI
Empathy	.377	.032	.315	.438

Boot LLCI = the lower limit of the 95%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 of the indirect effect
 Boot ULCI = the upper limit of the 95%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 of the indirect effect

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cosmopolitanism on cultural similarity

	Outcome: Empathy					
	Unstandardized Coefficient		β	<i>t</i>	R^2	ΔR^2
	<i>b</i>	<i>se</i>				
Step 1						
Cultural Similarity	.129	.028	.137	25.397***	.019***	.019***
Step 2						
Cultural Similarity	.095	.028	.101	3.366**	.062***	.043***
Cosmopolitanism	.287	.041	.212	7.045***		
Step 3						
Cultural Similarity	.786	.141	.837	5.593***	.084***	.022***
Cosmopolitanism	.836	.117	.617	7.168***		
Cultural Similarity x Cosmopolitanism	-.160	.032	-.910	-5.018***		

*** $p < .00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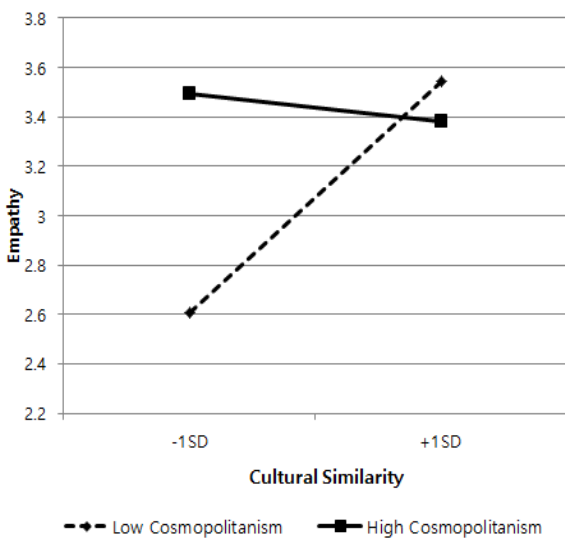


Figure 2. Interaction between cultural similarity and empathy

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사람은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에 관계없이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시민주의 식이 낮은 사람은 대상과 문화적으로 더 유사할수록 공감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 간의 문화 유사성이 높을수록 더 큰 공감을 느끼는 성향은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낮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3.2.4.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높게 인식할수록 더 큰 공감을 느끼는 성향이 세계시민주의 의식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가설 3을 검증하

기 위하여 Preacher 등(2007)이 제안한 SPSS Macro (MOMED; Model 2) 방법을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은 매개 모형과 조절모형이 결합된 모형으로,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의 효과가 조절변수의 값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Preacher et al., 2007).

Table 5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유사성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시민주의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5.018, p < .001$). 즉, 이 결과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공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시민주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나아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간접효과 크기를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해 세계시민주의의 평균값과 $\pm 1SD$ 값에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Table 6에 이 간접효과 크기와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는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낮아질수록 공감의 간접효과 크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008, .031, .071). 반면,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집단을 의미하는, 평균 +1SD 신뢰구간에는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 유사성이 공감을 통해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세계시민주의 의식의 수준에 따라 조절된다는 가설 3에서 가정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낮은 경우에는

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cultural similarity on helping intention through empathy with cosmopolitanis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imilarity and empathy

	Outcome: Empathy				
	Unstandardized Coefficient		t	LLCI(b)	ULCI(b)
	b	se			
Constant	-.702	.506	-1.388	-1.694	.290
Cultural Similarity	.786	.141	5.593***	.510	1.062
Cosmopolitanism	.836	.117	7.168***	.607	1.065
Cultural Similarity x Cosmopolitanism	-.160	.032	-5.018***	-.223	-.098

	Outcome: Helping inten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		t	LLCI(b)	ULCI(b)
	b	se			
Constant	2.622	.131	20.065***	2.366	2.878
Cultural Similarity	.189	.027	6.997***	.136	.242
Empathy	.377	.029	13.079***	.320	.433

***p < .001

Table 6. Bootstrapping regression results for moderated mediation model based on the levels of cosmopolitanism

	Cosmopolitanism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Empathy	Mean - 1SD	.071	.015	.043	.099
	Mean	.031	.012	.009	.054
	Mean + 1SD	-.008	.014	-.038	.019

Boot LLCI = the lower limit of the 95%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 of the indirect effect
 Boot ULCI = the upper limit of the 95%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 of the indirect effect

문화 유사성이 공감을 통해 도움의향에 영향을 주는 매개 효과가 유의미함이 밝혀졌지만,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경우에는, 문화 유사성이 공감을 통해 도움의향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 문화 유사성에 따라 경험하는 공감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4. 논의

본 연구는 도움의향에 대한 내집단 편향의 크기를 공감 수준이 매개하며, 나아가 공감 수준의 매개 효과를 세계시민주의 의식 수준이 조절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설 1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상을 돕고자 하는 의향이 강해진다는 내집단 편향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설 2에서는 도움의향에 있어서의 내집단 편향이 발생하는 원인이 공감에 있음을 공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통해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3 검증을 위해 문화 유사성과 공감의 매개 모형에 있어서의 세계시민주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사람은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유사한 수준의 공감 수준을 보여주지만,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낮은 사람은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높을 때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보였다. 이는 대상간의 문화 유사성이 높을수록 더 큰 공감을 느끼는 성향은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낮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요약 하자면 본 연구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의향이 강해진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세계시민주의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공감 수준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도움의향을 보여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집단의 문제로 치부되었던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과 도움의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 세계시민주의 의식 함양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내집단 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문화에 대한 노출을 사용하였다(Tadmor, et al., 2012; Motyl, et al., 2011).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일시적 노출이 내집단 편향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개인이 지닌 비교적 지속적인 세계시민주의 성향이 내집단 편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도움의향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 외집단으로 인식되는 대상에 대한 취약한 도움 수준, 전지구적 환경 문제 및 빈민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움직임 등 내집단 편향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 문제들이 타자 구분을 줄여주는 세계시민주의 교육으로 인해 일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인종,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내집단 편향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내집단 편향은 비단 도움행동 뿐 아니라, 타인의 능력, 매력도 평가와 같은 광범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나타난다(Jamieson & Zanna, 2014; Uhlmann & Cohen, 2007). 본 연구에서 발견된 개인의 세계시민주의 의식과 문화 유사성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r = .169, p < .001$)는, 높은 수준의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타 문화권 출신의 외집단 구성원을 덜 다르게 느끼게 하고, 나아가 타문화권 사람들에 대해 보다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현실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문화 유사성 수준과 도움의향을 공감의 매개하며, 공감의 매개효과를 세계시민주의가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도움의향이 실제 도움행동으로 이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대를 돕기 위해 돈이나 시간과 같은 자원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와 같은 질문을 이용하여 세계시민주의 성향

이 도움의향 뿐 아니라 도움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참가자들의 다문화 경험에 대한 개인차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에 대한 노출 수준과 세계시민주의 의식 수준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다문화 경험 수준을 통제 후 세계시민주의 의식 수준의 효과를 검증했다면 본 연구가 더욱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가진 다른 집단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 유사성에 대한 인식, 문화 유사성에 따른 내집단편향의 크기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ndreoni, J. (2006). Philanthropy. In: S. C. Kolm, & J. M. Ythier (Ed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giving, altruism and reciprocity: Foundations*, Amsterdam: Elsevier, 1201-126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asch, M. F. (1983). Empathic understanding: A review of the concept and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31(1)*, 101-126
- Batson, C. D. (2014).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answer*. New York: Psychology Press.
- Bertrand, M. & Mullainathan, S. (2004). Are Emily and Greg more employable than Lakisha and Jamal? A field experiment on labor market discrimin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4(4)*, 991-1013.
- Carpusor, A. G. & Loges, W. E. (2006). Rental discrimination and ethnicity in names. *Journal of*

- Applied Social Psychology*, 36(4), 934-952.
- Carson, E. (1990). Patterns of giving in Black churches. In: R. Wuthnow, & V. A. Hodgkinson, *Faith and philanthropy in America: Exploring the role of religion in America's voluntary sector*,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 232-252.
- Chi, E. L. & Sun, K. S. (2007). Analyzing the construct of global citizenship and related variables (연구논문: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39(4), 115-134.
- Cuddy, A. J., Rock, M. S., & Norton, M. I. (2007). Aid in the aftermath of Hurricane Katrina: Inferences of secondary emotions and intergroup helping.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0(1), 107-118.
- Dijker, A. J. M. (1987). Emotional reactions to ethnic minorit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3), 1105-1117.
- Foster, V., Mourato, S., Pearce, D., & Özdemiroglu, E. (2001). *The price of virtue: The economic value of the charitable sector*. Northampton: Edward Elgar.
- Freeman, R. B. (1997). Working for nothing: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1), 140-166.
- Frey, B. S. & Meier, S. (2004). Pro-social behavior in a natural setting.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4(1), 65-88.
- Gaertner, S. L., Dovidio, J. F., & Johnson, G. (1982). Race of victim, nonresponsive bystanders, and helping behavior.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7(1), 69-77.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ein, G., Silani, G., Preuschoff, K., Batson, C. D., & Singer, T. (2010). Neural responses to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suffering predict individual differences in costly helping. *Neuron*, 68(1), 149-160.
- Hogg, M. A. & Hardie, E. A. (1991). Social attraction, personal attraction, and self-categorization-, A field stud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2), 175-180.
- Jackson, L. A. & Sullivan, L. A. (1989). Cognition and affect in evaluations of stereotyped group member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5), 659-672.
- Jamieson, D. W. & Zanna, M. P. (2014). Need for structure in attitude formation and expression.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New York: Psychology Press, 383-406.
- Jung, J. Y. & Han, S. H. (2011). The review of neural basis for prosocial moral motivation and moral decision-making (친사회적-도덕적 동기 및 도덕적 의사결정의 신경학적 기제에 대한 개관 연구),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4(4), 555-570.
- Kruglanski, A. W. & Freund, T. (1983). The freezing and unfreezing of lay-inferences: Effects on impression primacy, ethnic stereotyping, and numerical anchor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5), 448-468.
- Lee, S. J., Yeon, B. Y., & Koo, S. H. (2010). Impacts of framing and the interaction with involvement on responses toward the campaign of helping the hungry abroad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의 효과에 미치는 긍부정 프레이밍과 관여도의 영향-상호작용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3(1), 147-162.
- Motyl, M., Hart, J., Pyszczynski, T., Weise, D., Maxfield, M., & Siedel, A. (2011). Subtle priming of shared human experiences eliminates threat-induced negativity toward Arabs, immigrants, and peace-mak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6), 1179-1184.
- Nussbaum, M. (2010).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The cosmopolitan reader*, Cambridge: Polity.
- Penner, L. A., Dovidio, J. F., Piliavin, J. A., & Schroeder, D. A. (2005). Prosocial behavior: Multilevel perspectiv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65-392.
- Pharoah, C., Walker, C., Goodey, L., Wilding, K., Wainwright, S., & Piper, G. (2006). *UK giving 2005/06: Results of the 2005/06 survey of individual*

- charitable giving in the UK*. Kent: Charities Aid Foundation.
- Piliavin, J. A. & Callero, P. L. (1991). *Giving blood: The development of an altruistic identit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eysen, S. & Katzarska-Miller, I. (2013). A model of global citizenship: Antecedents and outc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8(5), 858-870.
- Rimor, M. & Tobin, G. A. (1990). Jewish giving patterns to Jewish and non-Jewish philanthropy. In: R. Wuthnow, & V. A. Hodgkinson, *Faith and Philanthropy in America: Exploring the Role of Religion in America's Voluntary Sector*, San Francisco, CA: Jossey-Base Inc Pub, 134-164.
- Stephan, W. G. & Stephan, C. W. (1985).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Social Issues*, 41(3), 157-175.
- Straume, S. & Odéen, M. (2010). International and domestic altruism: A study among the adult population in Norwa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3), 618-635.
- Stürmer, S., Snyder, M., Kropp, A., & Siem, B. (2006). Empathy motivated helping: The moderating role of group membershi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7), 943-956.
- Tadmor, C. T., Hong, Y. Y., Chao, M. M., Wiruchnipawan, F., & Wang, W. (2012). Multicultural experiences reduce intergroup bias through epistemic unfreez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5), 750.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Cambridge: Brasil Blackwell.
- Uhlmann, E. L. & Cohen, G. L. (2007). I think it, therefore it's true: Effects of self-perceived objectivity on hiring discrimin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4(2), 207-223.
- Vertovec, S. & Cohen, R. (2002). *Conceiving cosmopolitanism: Theory, context and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원고접수: 2015.08.18

수정접수: 2015.10.13

게재확정: 2015.10.23